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 협의

산업부 “사업 형태·주체 논의 중” 이달까지 방산업체 지정취소 완료 예상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산공장) 자동차 설비는 괜찮은 시설이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나온다면 GM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매각일수도 있고 사업의 형태나 주체는 각화했었을 때 말하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빅3를 상대로 반도체 가격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문 실장은 “우리 업계에서는 담합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정이 100% 가동되고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기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오늘 중국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내부에 TF를 구성했고 자동차 협회도 로펌을 지정해서 답변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달 제출할 입장서와 다음 달에 열릴 공청회 준비를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타이어 전문기업인 더블스타로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달 말까지 방산업체 지정취소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라며 “이후에 방산 부문 매각이 이뤄지고 방산을 제외한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와 계약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각광

자녀 교육환경 최적의 입지 조건 갖춰 인근 실수요자들 문의 벌써부터 이어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지만 일부 지방 도시 아파트만은 예외다. 입지 조건이 뛰어나면서도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1순위 최고 청약률 1위부터 모두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단지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 도시들의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돋보였다. 그중에서도 익산시는 미분양 세대수가 빠르게 감소 중인 지역 중 하나다.

이러한 가운데 공급 소식을 알린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의 사업지는 전북 익산시 마동 170-1번지 일원으로 주변에는 국가산업단지, 익산 시청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 주거지로써 각광받고 있다.

교통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익산역이 인접해 있어 전국 반나절 생활권 이용이 가능하다. 또 국도를 이용해 시내 및 전주, 군산 등 인근 도시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반경 1km 이내에는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4개소는 물론 도서관도 있어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으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지하 2층~지상 20층, 3개동, 총 223세대를 공급하는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는 전용 75㎡ A, B 타입 구성으로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일부 세대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을 확보했으며, 수납공간이 제공되는 일부 타입도 마련돼 있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헬스장, 경로당, 주민회의실 등도 갖춰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의 사업지는 전북 익산시 마동 170-1번지 일원으로 주변에는 국가산업단지, 익산시청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 주거지로써 각광받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질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익산 마동의 경우 영등동, 부송동, 여암동과 인접해 중상생활권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나 주택 노후화 비율이 높고 신규단지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익산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의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야식으로 ‘이색 닭고기’는 어떨까

농촌진흥청, 단백질 소화 흡수율 높고 비타민 풍부

축구 경기를 볼 때 통닭이 부럽다. 닭고기야 이번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는 ‘이색 닭고기’ 요리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6일 토마토와 상추를 곁들인 닭고기 찜과 샐러드를 추천했다.

껍질을 벗긴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약 21% 정도로 높고, 지방은 3% 정도로 적어 소화 흡수가 잘된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농진청은 우선 토마토 닭 날개 찜을 소개했다. 닭고기는 칼집을 낸 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 10분간 재운다. 토마토는 초승달 모양으로 곱게 썰고 간 마늘은 칼집으로 납작하게 눌러 으갠다. 양파와 브로콜리는 먹기 좋게 썰어준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볶아 향을 낸 다음 닭고기를 넣어 볶는다. 닭고기가 익으면 양파와 브로콜리를 넣고 볶는다. 닭고기를 구운 다음에 물이나 적포도주를 붓고 가열한다. 토마토를 넣어 국물이 반쯤 될 때까지 졸이면 완성이다.

이와 함께 닭가슴살 시저샐러드도 즐길 수 있다. 닭가슴살은 얇게 저민 후 칼집을 내고 두들겨서 넓게 편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 10분간 냉장조에 넣어둔다.

달군 팬에 베이컨을 넣고 바삭하게 구운 다음 종이 행주에 올려 기름기를 뺀다.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식빵도 베이컨 기름이 남아 있는 팬에서 구워준다.

/김영태 기자

로메인과 라디치오 같은 샐러드 채소에 드레싱을 얹고 베이컨과 식빵을 넣고 섞는다. 이때 시판 드레싱이나 달콤한 겨자소스를 사용한다.

밑간을 한 닭가슴살을 팬에서 구운 뒤 얇게 썰거나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 샐러드에 올리면 완성된다. 기호에 따라 파르메산 치즈를 뿌려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 이용과 김윤석 농업연구사는 “닭고기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높고 비타민이 풍부하며 ‘채소를 곁들이면 늦은 저녁 야식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청소기 이어 선풍기까지 ‘무선 열풍’

G마켓, 무선 선풍기 판매량... 지난해보다 107% ↑

가전제품의 ‘무선 열풍’이 청소기와 이어 선풍기에 이어 선풍기에도 뻗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올해 5월 한달 동안 무선 선풍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7%의 성장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탠드형 선풍기 판매량이 같은 기간 8%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지난 4일 G마켓 ‘선풍기 베스트상품 100’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무선 선풍기의 판매 비중은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무선 선풍기 판매량 관련 집계를 진행한 곳은 G마켓이 유일하다.

G마켓 측은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과 미니멀리즘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G마켓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무선 선풍기 제품은 해외직구 상품인 ‘자오미 스마트 무선 선풍기’ (14만5000

원)다. 한번만충전해도 16시간 동안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전용 어플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각도, 타이머, 환경설정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저소음, 저발열, 초절전 직류 DC모터가 사용된 ‘이노코아든 유무선 DC인버터선풍기’ ▲바이오닉 디자인의 날개모양 자연풍에 가까운 바람을 만드는 ‘아이롬 무선선풍기 F9’ ▲선풍기 헤드를 상하로 90도까지 조절 가능한 ‘텔런트 유무선 DC인버트 에어써클레이터선풍기’ ▲실외작업 등에 적합하도록 휴대성을 강조한 디자인의 ‘스위스밀리터리 무선선풍기’ 등이 인기 상품이다.

G마켓 관계자는 “기존의 유선제품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노출되는 선이 없어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지역사회사랑부서 ‘JB멘토링 문화체험’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부서가 전주월드컵축구경기장에서 아동들의 큰 꿈을 키우는 ‘제30회 JB멘토링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JB멘토링 문화체험은 전북은행 임직원 급여 1% 성금을 통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직원들이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멘토가 되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문화체험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축구국가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출전식 경기를 직접 관람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큰 꿈과 희망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 직원과 아동 양육시설 아동 50명은 멘토와 멘티로 만나 한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표팀의 축구경기를 함께 응원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고, 출전식을 보며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을 지원했다.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아동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부동산 특별사경 실무교육

정부가 전국 부동산 특별사경경찰(특사경)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공무원을 포함하면 400명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는다. 이들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